

## 영화 「카미유 클로델」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Digital archive structure in the film “Camille Claudel”

차 영 선  
아주대학교

Cha, young-sun  
Ajou University

### 요약

「카미유 클로델」 영화에서 주요하게 다루지는 것은 예술작품이 완성되는 창작 과정의 재현 및 복원으로서 영화는 조각에 관한 지식과 정보, 기술을 전수하는 과정뿐 아니라 결과물인 작품을 데이터베이스 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I. 서론

학제 간, 매체 간, 장르간의 대화와 융 복합이 대세인 현시점에서 영화와 예술 장르의 통섭을 통해 디지털영상 미디어에 담기는 예술작업은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정보화사업 중 하나로서 현재 21세기 문화콘텐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는 각국의 정부주도로 '문화유산의 정보창고'로서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문화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시도하는데 이는 "훼손의 위험이 있는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보존하려는 움직임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디지털 정보기술에 기인하고 있다"[1]. 그런 의미에서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예술작품과 제작과정을 콘텐츠화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집중함으로써 영화와 예술이 접목된 「카미유 클로델」과 같은 영상문화 콘텐츠들은 특히 프랑스에서 적극 권장하는 추세에 있다. 또 프랑스 문화재청에서 예술 복원을 위해 이 같은 영화 제작을 정부 차원에서 재정적으로 후원하기도 한다.

### II.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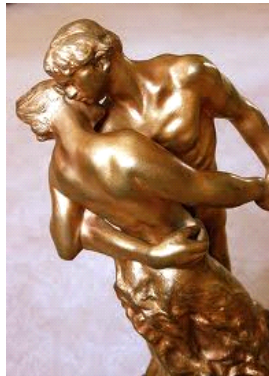
이런 관점에서, 「카미유 클로델」 영화에서 주요하게 다루지는 것은 예술작품이 완성되는 창작 과정의 재현 및 복원으로서 영화는 조각에 관한 지식과 정보, 기술을 전수하는 과정뿐 아니라 결과물인 작품을 데이터베이스 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화라는 매체가 조각을 다룬다고 할 때, 그것은 영화가 조각을 영화라는 방식의 이야기로 풀어간다는 의미이다. 그런 관점에서 「카미유 클로델」은 제작과정의 재현입과 동시에 기술 방법의 디지털 아카이브(Archives digitales)구축 달성을 위한 기록화 과정의 시도이자 그 일환이 될 수 있다. 유사 이래 대부분의 조각품들은 전시, 교육, 감상 등 현재의 목적만을 수행하고 보존·전송의 어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도중에

폐기해야 했지만 로맹은 자신의 박물관을 지어줄 것을 조건으로 “프랑스 정부에 전 작품을 기증할 것을 제의하여”[2] 그의 예술품은 오늘날까지 건재하게 남아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소고에서 다루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용어개념을 정의하면, 이 영화에는 <디지털 카메라로 인한 ‘포스트 시네마’가 논의되면서 HD카메라에 담긴 콘텐츠는 복원과 보존의 기능은 물론 콘텐츠의 분해, 통섭, 융합을 통한 새로운 학문의 배태로 새롭게 재 편제된 창조성과 확장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장소에 상관없이 전 지구적 공간에 거주 하고, 언제 어느 때라도 조회한다면 다시 살아날 예비 동면 상태로 남아 있는”(위키백과, “디지털 아카이브”, 2016.04.18.) 디지털 아카이브는 기존 아카이브와는 다르게 보관과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다 충족시킨다.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 상연된 영화중 디지털 아카이브에 적합한 연구대상의 영화를 살펴본다면 2013년 작 브뤼노 뒤몽 감독의 영화보다는 1988년 작 브뤼노 뒤몽 감독의 「카미유 클로델」에 더 많은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없다[3]. 전자는 주로 조각가로서 카미유의 일생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주인공의 말년에 포커스를 맞추며 쓸쓸하게 여생을 보낸 주인공 내면의 심리를 3일에 걸쳐 밀도 있게 농축시켜 놓았다. 반면, 후자는 로맹을 만나는 20세부터 여생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을 다룬 후지는 예술가의 삶과 조각 작품을 매치시키는 다큐드라마로서, 감독이 조각가(실존인물인 카미유)인 기능자를 대신하며 관찰자의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각 안에 대상을 두는 기록이다. 하지만 밖에서 대상을 향하는 관찰자로서의 기록방식이라 하더라도 기능자의 기록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중요성을 둔다. 그래서 디지털 영상콘텐츠가 무형문화재의 유산으로 살아 움직이도록 감독은 작품제작 내용을 제자처럼 배워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몸을 움직이며 그 내용을 영상스크린에 담게 하고 있다.

이 영화는 로맹과 카미유가 조각했던 시대적 걸작들이

영상스크린속의 등장인물들에 의해 구현되며, 영혼을 담은 예술작품으로 변모하는 과정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흥을 주면서, 보다 폭넓은 예술적 시야와 지식을 얻게 한다. 스토리 전개와 병행하는 조각을 어떻게 '영화적'으로 구현하는가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예술적이며, 그런 관점에서 예술작품을 카메라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로 보정시킴으로써 빛이 달라질 때마다, 또 바라보는 위치가 달라질 때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 움직이기도 한다. 카메라를 통해 조금씩 각도를 바꿔 가며 조금씩 변해가는 조각의 모습을 관찰하면 그 아름다움에 누구나 매료될 수밖에 없다. 「카미유 클로델」은 카메라 감독이었던 브뤼노 뉘탕이 처음으로 감독을 맡은 작품으로서, 「왈츠」 역시 카메라의 3차원 기법으로 관객의 시선과 움직임을 대신한다. 정지한 것이지만 사실상 움직임을 보여주는 '본질을 표현한 과학적인 예술'로서, 3차원적인 입체표현의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킨다. 디지털 콘텐츠와 3차원의 촬영 기법과 상관성이 있음으로써, 기존의 유물측정 방법과는 분명히 다른 "3차원 디지털문화재의 구축은 3차원 레이저 스캐너와 분석도구, 형상복원 시스템(RP Machine) 등의 장비로 구축되며"[4] '영구 보존 가능, 매우 높은 정밀도 보장 등'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닌다.



▶▶ 그림 1. 「왈츠」

3차원 촬영기법으로 디지털 콘텐츠화된 「왈츠」에는 카미유의 감성이 고스란히 묻어나면서 사물의 실상만큼 느낌을 중요시하는 숭고한 영혼의 예술로 고양되고 있다. 조각품들은 카메라의 각도, 운동과 함께 관객의 참여

를 이끌어낸다. 이런 관점에서 모든 각도에서 포착되는 구도를 카메라가 대신하며 대중인 관객은 영상콘텐츠라는 매체를 통해 시각적인 즐거움을 얻는다. 이처럼 예술 영역과 매체 영역을 혼합해서 꾸며 나가는 최근 문화콘텐츠 시대의 동향은, 영상콘텐츠 산업이 대중적인 문화산업의 중심으로 부각하도록 하며 예술가의 삶을 재현하고 복원하는 문화상품은 문화산업의 향유자인 대중을 설득하기에 충분할 만큼 대중을 예술의 주체로 만든다.

### III. 결론

카미유의 작품들 대부분은 파괴되었지만 남동생 폴 클로델이 그가 생존 시 전국적으로 공모하여 그녀의 작품을 되찾으면서 오늘날까지 보존하는데 크게 공헌한다[5]. 약 92점 정도가 복구된 그녀의 조각품들은 오늘날까지도 현존하며 또, 이런 그녀의 복원된 작품들은 문화예술이 콘텐츠에 의해서도 존재·계승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영화 및 UCC를 통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다. 이같은 디지털 자료의 구축은 그녀의 작품에 대한 원 소스 멀티유즈(OSMU)의 원천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장르로의 확장으로도 밝은 비전을 제시한다.

대표작으로는, 「웅크린 여인」(1892), 「아이리스」(1890-91), 「다나이드」(1885), 「카미유 두상」(1884), 「칼레의 시민들」(1884-1888) 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소개할 뿐 아니라, 인류사의 걸작이라 꼽히는 「지옥의 문」을 비롯하여, 「늙은 엘렌느」(1882), 「지강티」(1885), 「사쿠타라」(1887-1888), 「웅크린 남자」(1886), 「왈츠」(1891-1905), 「웅크린 여자」(1892), 「끌로토」(1893-1897), 「수다쟁이들」(1893-1905), 「샤틀렌느」(1893), 「중년」(1899-1913), 「페르세우스와 고르고니」(1898) 등이 있다.

### ■ 참고 문헌 ■

- [1]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유산의 정보창고, 디지털 아카이브”, 「문화기술(CT) 동향」 54, 2013. 10. -통권 32호, 57
- [2] Daum 백과사전, “로댕 [Auguste Rodin]”, (2016.04.18) Conte, S. and Hall, R., “A measure of execution path complexity,” Comm. ACM, Vol. 31, No. 2, pp. 188-200
- [3] Bruno Nuytten, Camille Claudel, 175분, Produced by I. Adjani and C. Fechner, 1988.
- [4] Camille Claudel 1915, A Feature film by Bruno Dumont Produced by 3B Productions. Release in France: 13/03/2013.
- [5]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유산의 정보창고, 디지털 아카이브”, 「문화기술(CT) 동향」 54, 2013. 10. -통권 32호, 57.
- [6] Asselin, Henry, journaliste critique d'art, consacre cette émission à “L'artiste” Camille Claudel, “La vie douloureuse de Camille Claudel,” 12.10.1956 (17min 37s).